

# 전등사 약사전 수리보고 (傳燈寺 藥師殿 修理報告)

金 周 泰  
〈文化財委員會 專門委員〉

## 전등사 약사전(傳燈寺 藥師殿)

지정번호 보물(寶物) 第179號  
소재지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吉祥面 傳燈寺)  
규모 정면(正面) 3칸(間) 측면 2칸  
정면(正面) 18척(尺)7촌(寸)5분(分)[각칸(各間) 6척2촌5분식(式)]  
측면(側面) 73척5촌2분(각칸 8척6촌7분식)  
주고(柱高) 8척  
총고(總高) 기단상(基壇上)에서 종(宗)마루까지 약 20척  
건평(建坪) 7.04평  
단층(單層) 팔작 개와(八作 蓋瓦) 지붕  
시대(時代) 이조중기(李朝中期)

전등사 사적기(傳燈寺 事蹟記)에 1916년 3월 12일 대웅전(大雄殿) 보수공사시(補修工事時) 발견된 양간록(樑間錄)을 보면 「만력(萬曆) 23년(1605) 을사출화소진반부(乙巳出火燒盡半部) 갑인(甲寅)[1614] 12월 初1日 재출화(再出火) 소진전부(燒盡全部) 동(同) 43년(1615) 을묘월일시역(乙卯月日始役) 천계원년(天啓元年)[1621] 신유윤이월초(辛酉潤二月初)7日 연목종(椽木終)」이라 기록되어 있어 대웅전(大雄殿) 연대는 서기 1615년으로 되어 있으나 약사전(藥師殿)에 대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약사전(藥師殿)도 같은 연대에 건축된 것 같다.

또한 사적기(事蹟記)에 약사전(藥師殿) 보수공사기록을 보면 고종왕(高宗王) 13년(1876) 병자(丙子)에 효월화주대웅전급약사전(孝月化主大雄殿及藥師殿)에 중수개와(重修蓋瓦)하다.

### 「參考」 傳燈寺大雄殿藥師殿 蓋瓦重修記

府文南 鼎足山中 有傳燈寺 寺之久 唯大雄殿是  
己 古老相傳 元順帝至正甲申 三度重修云 殿之  
西有藥師殿 桐宇之完 瓦砌壽 想不在大雄殿之  
後 年久頽圯 觀者興歎時 鶴坡趙公 居留是邦  
改建藏史閣 仍 題給度牒於本寺 大師孝月堂 始  
與諸閣梨 鳩財於境內檀越 先修大雄殿罅漏 次  
及藥師殿 傾者正之 頽者築之 役巨工倍 告訖之  
日 詳錄施主于板上 以爲求益福田之大願 耐永

諸佛之慈悲云爾

光緒二年丙子孟夏 稷下 洪璿燮記

施主 江華留守 趙秉式

木手 金養壽蓋瓦 咸敬五 泥匠 韓致永 丹

靑 華隱堂 尙典(事蹟記 引用)

그후 보수공사는 불기(佛記) 2,959년(1932) 임신(壬申)에 주지(住持) 이보인(李普仁)이 국고보조금을 득(得)하여 대웅보전(大雄寶殿)과 약사전(藥師殿)을 중수(重修)하고 1958년 국고보조금으로 보수를 한 바, 단주일본(丹柱一本) 신규보충(新規補充)과 기타목부수리(其他木部修理) 개와보수(蓋瓦補修) 및 벽공사를 하였으며 금번(1968) 문화재관리국의 보조금으로 보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필자가 관여하였기에 적어 두려는 것이다.

보수전 상황은 우누(雨漏)가 있었으며 동북우(東北隅)의 춘설(春舌)사래, 선자연 등 부식(腐蝕)되어 탈락되었으며, 기타 연목(椽木) 부연등(浮椽等) 목부(木部)가 부식되었다. 고로 목부보충(木部補充) 및 교체, 개와보충(蓋瓦補充)(번와(翻瓦)) 미장공사(美匠工事) 등을 하였다.

약사전(藥師殿)의 현재 기단(基壇)은 계단과 상부(上部)만이 다듬은 장대석(長臺石)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중간에 한 것으로 보이며 좌우후면하부(左右後面下部)는 자연석(自然石)으로 쌓았다.

초석(礎石)은 잘 다듬지 않은 자연석(自然石)으로 덩벙주초를 놓았다.

주고(柱高)는 일정치 않아 덩벙주초로서 높이를 조절하였으며, 기둥뿌리가 평주(平柱)나 우주(隅柱)가 1尺 정도로 굵기는 같으며, 주상(柱上)은 9寸으로 가늘어져 기둥 전체에 약간의 배흘림이 있다.

우주(隅柱)가 평주(平柱)보다 3寸의 귀솟음이 있는 바 이는 상인방(上引防)에서 2寸 창방(昌防)에서 1寸의 각각 높이를 주어 3寸의 귀솟음을 가지게 하였다. 이는 건물이 작은 규모에 비하여 대단한 귀솟음을 주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이보다 규모가 큰 대웅전(大雄殿)도 귀솟음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다.

본건물(本建物)의 귀솟음이 있는바 이는 전체의 안정감을 주며 귀솟음을 줌으로써 기포 추녀사래 등의 하중이 많은 부분의 역학적(力學的) 지탱을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겠으며 춘설(春舌)부분 등 양곡의 곡(曲)을 많이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겠다.

귀솟음은 다른 건물에서도 많이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재래식 고건물(古建物)에 거의 십중 팔, 구는 다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귀솟음은 본건물(本建物)과 같이 작은 건물에서는 현저하게 나타나나 건물이 큰 것에서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수평인 것처럼 착시(錯視)가 되나 실지로는 거의 귀솟음이 있다.

실측(實測)결과 많은 예를 나타내었으며 팔작(八作)지붕의 경우 거의가 그러하다. 맞배집일 경우도 귀솟음이 나타나 있다. 상대건축(上代建築)양식인 봉정사극락전(鳳停寺極樂殿) 등에서 볼 수 있다.

맞배일 경우 귀솟음을 주어 처마곡(曲)을 약간 주며, 또한 뿔목부분(部分)의 하중(荷重)을 지탱(支撐)케 함도 있다 하겠다. 보통 건물에서는 우주에 귀솟음을 주고 우주가 평주보다 굵은 편이다. 이는 많은 하중을 지탱케하며 안정감(安定感)을 주기 위함일 것이다. 꺾기둥이 굵은 것은 건물이 큰데서 많이 쓰이나 본건물(本建物)에서는 우주(隅柱)나 평주(平柱)가 같다. 이는 건물이 작은 관계라 하겠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본(本建物)은 귀솟음을 많이 주었다. 귀솟음이 많음으로 처마곡(曲)이 많고 처마가 또한 작은 건물에 비하여 많이 나왔다.

타건물(他建物)에 비하여 실측치(實測值)를 보면

명 칭(名 稱)	정 면(正 面)	측 면(側 面)	주 경(柱 徑)	주 고(柱 高)	처마건(巾)[柱 心에서처마끝까 지 (이맥이)]
전등사 약사전(傳燈寺 藥師殿)		2 간 ( 間 )	1.0		
경복궁 내협길당(內協 吉堂)		13.52	0.8 각	8.05	6.5
안동양 진 당(安東養 眞堂)	3간(間) 18.75			9.25	5.45
안 동 임정각(安 東 臨靖閣)	5간 47.95	5간 41.40	(角)	9.45	5.5
수 원 화서문(水 原 華西門)	4간 27.0	2간 17.0	1.0	12.0	5.80
전등사 대웅전(傳燈寺 大雄殿)	3간 31.2	4간 37.4	1.2	7.50	5.00
개심사 대웅전(開心寺 大雄殿)	3간 38.40	2간 26.80	1.60	10.20	7.6
관룡사 대웅전(觀龍寺 大雄殿)	3간 27.9	3간 24.4	1.3~1.9	10.75	8.1
관룡사 대웅전(觀龍寺 大雄殿)	3간 36.18	3간 26.18	1.30	11.0	8.30
밀양령 남 루(密陽嶺 南 樓)	3간 30.40	3간 24.90	1.40	17	9.07
개암사 대웅전(開岩寺 大雄殿)	5간 61.60	4간 40.20	1.55~1.75	11.8	9.30
개암사 대웅전(開岩寺 大雄殿)	3간 39.50	3간 25.80	2.0	16.3	10.1
화엄사 대웅전(華嚴寺 大雄殿)	3간 62.5	3간 37.50	1.7~2.2	10.75	8.1
개심사 대웅전(開心寺 大雄殿)	3간 36.8	3간 26.18	1.30	7.00	7.25
송광사 하사당(松廣寺 下舍堂)	3간 26.3	3간 15.80	1.20	9.0	7.1
봉정사 극락전(鳳停寺 極樂殿)	3간 38.50	2간 23.0	1.1~1.3	13.8	4.56
동 묘(東 廟)	5간 57.95	6간 63.5	1.25	11.35	6.15
동 묘 외 문(東 廟 外 門)	5간 49.2	2간 16.40	1.25	11.01	5.5
동 묘 외 문(東 廟 外 門)	3간 33.10	4간 25.1	1.3	7.30	6.05
동 묘 내 문(東 廟 內 門)	1간 11.55	1간 10.0	1.15	9.75	7.58
관룡사 약사전(觀龍寺藥師殿)	3간 41.25	2간 25.40	1.30	9.0	8.17
장곡사(長谷寺) 상(上) 대웅전	3간 28.42	2간 18.30	1.4	12.03	6.00
장곡사(長谷寺) 하(下) 대웅전	15간 199.875	2간 28.60	1.65		
해인사(海印寺) 大藏經板庫 (대장경판고)	3간 46.75	4간 35.56	1.6~1.8	11.4	7.5
수덕사 대웅전(修德寺 大雄殿)					

이상과 같이 규모(規模) 주고(柱高) 주경(柱徑)과 처마폭(巾)을 비교할 수 있으며, 기단상(基壇上)에서 처마높이와 처마폭(巾)을 비교하면 많은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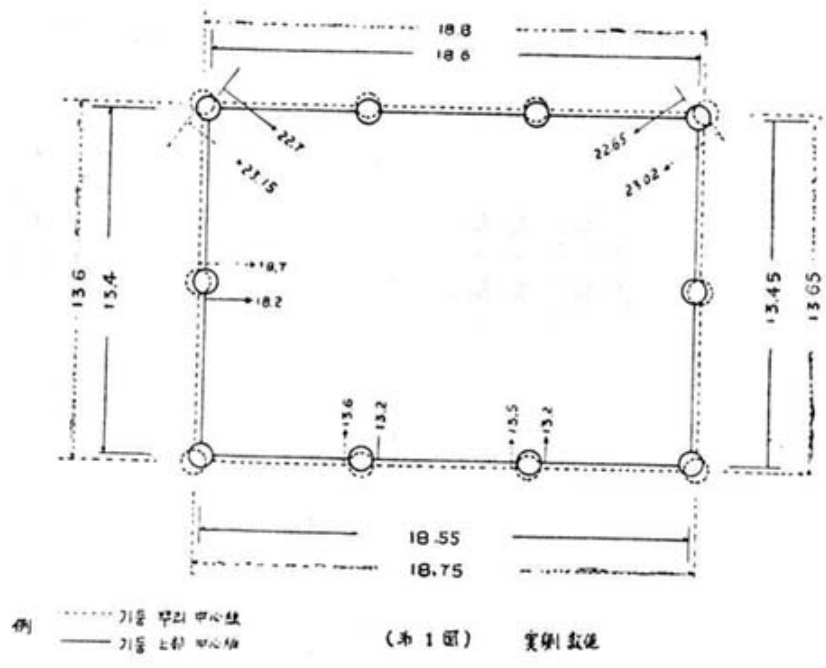
또한 이 건물의 특징은 기둥 전체에 안쏠림이 있다. 즉 평주(平柱)도 안으로 쏠림을 가지게 하고 우주(隅柱)도 안쏠림을 가져 대각선(對角線)으로 쏠리게 하였다. 안쏠림이라 함은 주(柱)가 수직(垂直)되게 놓여야 할 것을 주상부(柱上部)가 기둥뿌리보다 안으로 경사(傾斜)된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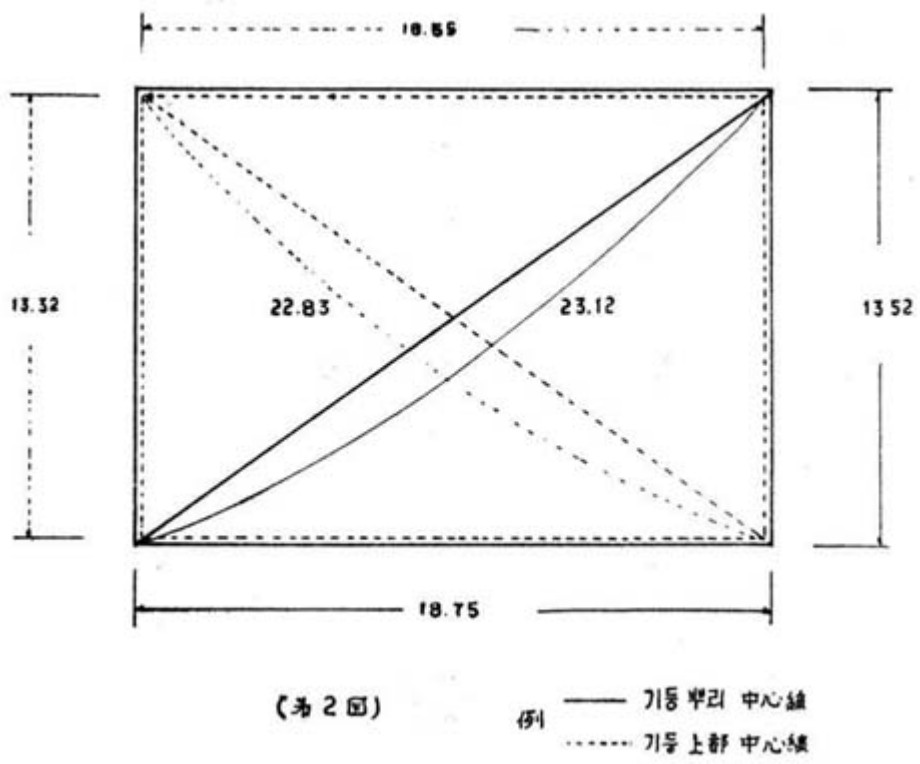
〈수리 전(修理 前)〉



〈수리 후(修理 後)〉



第1圖



第2圖

본건물(本建物)은 평주(平柱)에서 안솔림을 각 일촌식(一寸式) 주었고 우주(隅柱)도 각 일촌식(一寸式) 안솔림을 주었으므로 대각선(對角線)에서는 더 많은 안솔림을 갖게 하였다.

실측결과(實測結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제1도 참조)

실측결과에 따라 복원수치(復元數値)를 정면(正面) 18척(尺) 7촌(寸) 5분(分) 측면(側面) 13척 5촌 2분을 정하였다. 기둥뿌리의 대각선의 수치는 「피타고라스」(PYTHAGORAS) 정리(整理)에 의하여,

$$\begin{aligned} \text{피타고라스정리} &= A^2 + B^2 = C^2 \\ A &= 18.75 \quad B = 13.52 \\ 18.75^2 + 13.52^2 &= C^2 \quad C^2 = 534.3529^2 \\ 534.3529^2 &= 23.12 \end{aligned}$$

고(故)로 기둥뿌리(주하단(柱下端))의 수치는 23척(尺) 1촌(寸) 2분(分)이며, 주상단부(柱上端部)의 수치는 4방 1촌 안솔림을 보아 정면(正面) 18척 5촌 5분 측면(側面) 13척 3촌 2분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begin{aligned} (A^2 + B^2) &= C^2 \\ A &= 18.55 \quad B = 13.32 \\ 18.55^2 + 13.32^2 &= C^2 \quad C^2 = 521.5249^2 \\ 521.5249^2 &= 22.83 \end{aligned}$$

고(故)로 주상단부(柱上端部)의 수치는 22척(尺) 8촌(寸) 3분(分)이다. 여기서 주상하단(柱上下端)의 차(差)는 2촌 9분의 차가 생겼다. 그렇다면 안솔림이 사방(四方) 각 1촌식(寸式) 가졌다면 우주측대각선상(隅柱即對角線上)의 주(柱)는, 일촌(一寸)의 안솔림을 가지면서 대각선상(對角線上)으로는 1.45촌(寸)이 쏠리게 되었다. (제2도 참조)

안솔림의 수치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으나 본건물(本建物)의 규모로서는 많이 주어졌다 보겠다. 안솔림의 예는 바로 옆에 있는 전등사 대웅전(傳燈寺 大雄殿)에서도 볼 수 있다.

안솔림에 따라 모든 부재(部材) 공포(拱包) 등이 안솔림이 되게 된다. 여기에 따라 역학적(力學的)인 문제와 시공상(施工上)의 동계점에 대하여는 더 연구하여야 될 것이다.

정면 삼간(正面 三間)에 각간(各間) 양개(兩開) 빗살문을 달고 측면(側面) 후면(後面)에는 전부 벽(壁)으로 둘러쌌다. 기둥 위에는 평방(平防) 없이 창방(昌防)으로 둘러쌌으며, 창방(昌防) 뒤편에는 조각을 하였다.

전면(前面)에는 다포작(多包作)이나 후면(後面)과 좌우측면(側面)에는 주심포작(柱心包作)을 하고 전면(前面)의 공간포(空間包) 대신 화반(花盤)을 끼웠으나 각기 다른 조합(組雜)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외일출목(外一出目) 내이출목(內二出目)으로 포작(包作)을 짰으며 곡(曲)이 많은 양서, 수서의 중(重)수서로 되어 있다.

내부의 바닥은 청판(廳板)을 깔고 전후중앙간(前後中央間)에는 대량(大樑)을 측면중앙간(側面中央間)에는 충량을 용머리로 하였다.

대량(大樑) 위에 동자주를 세워 중중량(中宗樑)을 얹고 천정(天井)은 중앙(中央)에 혀장설(長舌)을 돌려 우물천정을 하고 주위(周圍)에는 빗천정을 하고 주변(周邊)은 이출목장설(二出目長舌)이 순각개판(巡閣蓋板)을 둘러쌌다.

중도리(中道里)는 굴도리(원도리(圓道里))도 아니요 납도리(평도리(平道里))도 아닌 환목(丸木)을 반을 쪼개어 썼다.

이상(以上) 여러 가지 조사 연구할 점이 많으나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다.

「문헌충사중건유감(聞顯忠祠重建有感)」

거듭세운 충사가 우리동쪽을 진압하였으니 밝은 신령이 단청한 속에 척강하고  
重建忠祠鎮我東(중건충사진아동) 明靈陟降丹青裡(명령척강단청리)

공을 다한 이땅에 한 마음을 같이했도다. 정미로운 빛이 길고 오래된 가운데 이회하  
도다

竣功此地一心同(준공차지일심동) 精彩依俵永久中(정채의희영구중)

슬프다 저 당한해 모해한 무리가 고요히 끼친 훈계를 봄에 강개가 많으니  
嗟彼當年謨諂輩(차피당년모도배) 靜看遺訓多慷慨(정간유훈다강개)

어찌 다른날에 개가할 바람을 알리오. 공번듯붓이 밝아서 만고에 통하도다.  
奚知任日凱歌風(해지임일개가풍) 公筆昭然萬古通(공필소연만고통)

전남장흥군부산면기동리(全南長興君夫山面基洞里)  
장흥(長興) 위 계 첨(魏啓尖) 근정(謹正)